

0928(수) 스가랴 1-6장 절망스러운 평안

유대인들은 포로생활을 끝내고 귀향하며
심판 끝, 회복 시작이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.
그러나 예루살렘과 성읍들의 회복은 더땠습니다.
약속하셨던 열방 심판도 전혀 기미가 없었습니다.
너무 평안한 것이 도리어 절망스러웠습니다(1:11).

<언제까지입니까? > 백성들은 절규했습니다(1:12).
조용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.
하나님의 순찰병들이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(1:10).
강한 뿔도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견디지 못하듯(1:18-21),
견고한 제국들도 결국 파괴되고 무너질 것입니다.

성전과 성벽, 예배도 모두 재건될 것입니다(2장).
하나님 없는 견고한 도성, 성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
하나님은 불 성벽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(2:5),
남루한 귀향민들에게 <새 옷>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(3:4).
힘과 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(4:6).

하나님께서서 예루살렘, 시온으로 <돌아오시면>,
그곳의 죄와 악행이 <떠나게> 될 것입니다(5장).
열방을 심판할 주의 군대가 출정하고 있습니다(6장).
하나님은 <썩>, 여호와와 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(3:8, 6:12).
조용하다고 하여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.

“모두들 조용히 하여라! 쏙!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여라
그분의 거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.
그분이 움직이고 계신다! (메시지성경 2:13)”

나는 <절망스러운 평안>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?

- ❶ 기도(약속)에도 불구하고 <아무 일 없을 때>의 심경은 어떠합니까?
- ❷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며 움직이고 계셨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스가랴 1-6장

업로드 자료 ❶ <BIBLE PROJECT 성경개관> [스가랴 개요 Zechariah - YouTube](#)